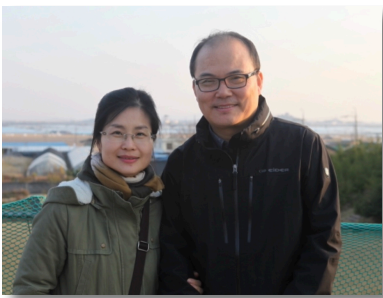


열세번째 이야기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FTS 실습을 마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의 병 치유를 계기로 가족이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후부터 교회와 집과 학교를 오가는 생활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결혼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남편의 조력자로 살며, ‘감사맨’인 그의 영향으로 주어진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2년전 1월 즈음 어느 토요일 새벽에 눈이 떠졌는데,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던 남편이 BEE기도회에 같이 가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잠이 안 와서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단지 다시 잠이 안 들어 따라 나선 것 뿐인데, 새로 온 사람이라고 일어나라고 하더니 환영송을 불러 주었습니다. 그날따라 일어난 사람이 저 혼자라 얼마나 쑥스러웠던지 마음속으로 ‘잠이나 더 잘 걸..왜 따라 나서서 이 낯설고 쑥스러운 상황에 있을까’하며 따라온 것을 무척이나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회에 먼저 나오고 계획에 없던 온비야를 바로 등록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BEE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뭔가를 시작하면 꾸준히 하는 성격 탓에 매주 기도회에 나오기를 반복했지만 저만 모르는 것 같은 생소한 용어들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생소한 용어들은 아직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에는 선교사님들이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매주 해외로 파송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님들을 보면서 구체적인 기도로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All&One에서 조문상 선교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간증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선교 현장인 아프리카에서 열병을 앓으셨던 얘기를 해주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좀 일찍 죽으면 어떡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저는 지금 주님의 나라를 가도 부끄러움이 없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FTS과정은 일대일 양육을 할 때 동반자에게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실습 과정을 마치고 지난 6주간 로마서 실습 과정도 마쳤습니다.

갈라디아서 실습 시간에는 전체적인 개요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벅대며 30분 실습을 마치고, 성령님의 도움없이 평신도가 인도자로 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실습 시간에는 로마서를 매주 공부해가서 실습하고, 함께 나눔의 과정을 통해 말씀을 더 깊이 알아나가는 과정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기도회에 가는 시간에는 차 안에서 남편과 함께 준비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인도자님들의 지적을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라며 평가받을 때 잘 새겨두고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실습 기간 동안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로마서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 실습을 마치고 식사 교제를 하면서 나누는 내용들이 너무 풍성하고 좋아서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지며 기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함께한 나눔 중에서 “믿음의 한 발을 떼는 것이 어렵지만 한 발을 내딛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하늘나라를 꿈꾸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 거한다면 충분히 천국을 이루고 살 수 있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로마서 말씀을 토대로 함께 토론하고 나눔을 하며 각자의 견해를 밝히는 시간이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같은 훈련생들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각자 다른 환경에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공통분모를 가진 우리들이기에 깊은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교제를 할 수 있을까?

FTS 과정을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훈련 과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BEE라는 선교 단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BEE에서는 청년 대우를 받게 되어 상대적으로 젊어진 느낌이 듭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인생의 롤 모델이 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매주 함께 기도하는 기도테이블 가족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이번 FTS를 계기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아직도 부족함 투성이지만 헌신된 사역자로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계기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끝으로 미소 띤 얼굴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내하셔서 격려해주시고 지도해주신 인도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글: 이승혜, 편집: 이경주)



글쓴이 이승혜집사는 온누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장영호 집사와의 사이에 대학생 아들 성우와 고등학생인 딸 하은이를 두고 있습니다. 차세대 꿈땅 교사로서 유년부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BEE 소식

- 6월 9일 온비아 수료예배가 있습니다. 수료하신 분들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수강하여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동역자로 헌신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제 1회 대한민국 회계 대상에서 송인만 집사님이 회계 개혁법 개정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